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 스 크

추석 연휴에도 부모님 치매상담 24시간 가능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연중 24시간 운영

치매안심센터 통해 진단검사 실시…비용 무료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치매상담콜센터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매상담콜센터는 연중 24시간동안 전화(1899-9988)로 치매와 관련된 정보 상담, 간병에 따른 심리적·정서적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 결과 치매가 의심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휴가 끝난 후 집 근처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에서 자세한 상담과 함께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선별검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치매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별검사에서는 뇌 영상검사(CT, MRI),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설치되어 상담, 검사,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인지간강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예방, 인지강화교실, 치매쉼터)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 약값(월 3만 원)과 기저귀 등 조호물품 지원, 가족카페 운영,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가족의 도움을 반기 힘든 치매환자에게 공공후견인 지원,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등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214개소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인력을 갖추어 운영 중이며,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 할수록 건강한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를 맞아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 치매상담콜센터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시도록 적극 권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안군 해제면, 추석 명절

맞아 노인복지시설 위문

무안군 해제면은 6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노인복지시설(해제용학복지센터)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덕담을 나눴다.

박준선 면장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정을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명절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보성군의회, 복지시설 위문

보성군의회(의장 신경균)는 9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관내 행복노인복지센터 외 4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위문·격려했다.

특히, 보성군의회는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성=인구일 기자

고흥군 공무원들, 추석맞이 1대1 자매결연 가구 방문



고흥군 간부 공무원들이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특수시즌으로 명절 때마다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과 1대1 자매결연을 맺고 과일, 수산물 세트 등 위문품을 마련해 결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로·격려하

고 있다.

군은 이번 추석에도 나눔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의 세심한 복지 행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소외계층 303가구를 찾아간다.

송귀근 군수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군민들이 행복한 군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달라”며 “특히 저소득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가능한 수시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군정에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찾아가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운영

장애인-비장애인 1:1 매칭 교육으로 장애 감수성 함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은 지난 2일에서 6일 까지 전주맞춤훈련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지난해부터 법제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체에서 연 1회, 1시

간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초빙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양성한 강사를 초빙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한해 1,000여명의 전문 강사를 배출하고 있고, 2022년까지

5,000여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강사양성 과정은 찾아가는 지역맞춤형으로 운영되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의 역할,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 해소 및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 등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교육받을 때부터 장애인 교육생과 비장애인 교육생을 1:1 매칭하여 실시해 장애 감수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고,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10월에도 대전 무역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역맞춤형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직장 내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식개선을 하는 업종한 임무를 떤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